

2011 전문대 정원 4.8% 감소

145개 대학 28만2,273명 선발

현재 고교 2년생이 대상인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145개 전문대가 28만2천273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2010학년도와 달리 추가모집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정시모집 때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충원하도록 했으며 수시모집 비율이 74.2%에서 75.1%로 늘었고,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이 5개대에서 10개대로 늘어 812명을 뽑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2011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해 발표했다. 자세한 자료는 전문대교육 홈페이지(http://ipsi.kc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시에서 특별전형은 하는 140개 대에 대해 학생부와 면접을 반영하며 112개대는 학생부만, 3개대는 면접만 반영한다.

정시 일반전형은 145개대가 실시하는데 105개는 학생부와 수능으로, 11곳은 학생부·수능·면접으로, 5곳은 수능만으로, 17곳은 학생부만으로 뽑는다. 수시 정원내 일반전형의 경우 광주보건·송원·순천청암·서강정보·조선이공·전남과학대 등은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이 21만1천934명, 정시모집이 7만3천399명으로, 수시모집 비율이 75.1%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수시 때 뽑지 못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 정시로 이월된다.

모집시기는 수시와 정시(대학별 자율모집)로 구분되고, 추가모집은 별도 시기를 정하지 않고 정시 기간에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충원하거나 분할모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형요소=수시는 일반전형을 하는 130개대 모두 학생부와 면접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 106개대는 학생부, 2개대는 면접만 본다.



수시모집은 2010년 9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이고 합격자는 12월 12일까지 대학별로 발표한다. 수시 기간은 일반 4년제 대학과 같다. 합격자 등록기간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이다.

정시는 12월 17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74일간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 학생들의 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정시모집이 21만1천934명, 정시모집이 7만3천399명으로, 수시모집 비율이 75.1%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수시 때 뽑지 못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 정시로 이월된다.

모집시기는 수시와 정시(대학별 자율모집)로 구분되고, 추가모집은 별도 시기를 정하지 않고 정시 기간에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충원하거나 분할모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형요소=수시는 일반전형을 하는 130개대 모두 학생부와 면접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 106개대는 학생부, 2개대는 면접만 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민국 빛낸 최고기록 공무원

행안부 선정, 광주·전남 3인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3명이 25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에 포함됐다. 행안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모대회'에는 각종 분야에서 보유한 기록 1천548건이 접수됐으며 선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분야별로 업무경쟁력 60개, 특이기록 34개 등 94개 기록이 최고기록으로 뽑혔다.

주문석씨 불법 중국어선 278척 나포 기광연씨 장미 12품종 개발 농가 보급 방정수씨 심폐소생술로 6명 목숨 살려



주문석 경정 기광연 연구사 방정수 소방교

주문석 경정은 '278척, 2천823명' 11년 간 해양경찰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한 완도해양경찰 소속 주문석(56)경정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과 선원의 수다.

1975년 12월 해양경찰에 입문한 주 경정은 지난 1996년 279 함장에 부임,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26명)을 나포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두 278척(2천823명)을 나포했다. 이 분야에선 국내 최고 기록이다.

이로 인해 중국어민 사이에는 '주 경정에 걸리면 100% 나포'라는 소문이 돌 정도라는 소문까지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경정은 함장 재직 시절인 1998년과

2001년 불법어선 나포 실적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 경정은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팀워크 덕분"라며 몸을 낮췄다.

기광연 연구사는 전남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에 근무하는 농업연구사 기광연(45)씨는 '금강보다 비싼 씨앗'을 돌려싸고 소리가 펼쳐지는 종자 전쟁의 첨병이다. 국내 장미의 90%가량이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을 재배, 로열티(26명)를 나포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종의 품종 개발, 농가에 보급했다.

기 연구사는 또 국내 처음으로 장미 420종에 대한 품종 검색프로그램을 작성, 등록한 것은 물론 관련 논문 22편을 게재(주 저자 11편)하는 등 장미 품종 분야에서 갖가지 기록을 갖고 있다. 기 연구

사는 "저보다 더 많은 장미 품종을 개발하고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동료들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방정수 소방교=지난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폐소생술을 통해 위기에 처한 시민의 생명을 잇따라 구한 광주동부소방서 학운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방정수(31)소방교도 대한민국 최고 기록공무원에 선정됐다.

방 소방교는 지난해 12월 광산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경기 도중 호흡과 심장이 멈춘 이모(29)씨를 기관내 삽관 등 전문 심장소생술을 동원해 살려냈다. 지난 3월에는 동구 한 모델에 투숙 중 심장이 멈춘 김모(29)씨를 살려내는 등 모두 6명의 목숨을 구했다.

방 소방교는 "소방관의 주 임무는 생명구조인데 이 분야에서 최고기록을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경호기자 kh@kwangju.co.kr

순천교도소 '중간처우의 집' 개설

가석방 앞둔 모범수 지원

순천교도소에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의 집'이 개설됐다. 법무부는 25일 순천교도소와 춘천·마산·청주여자교소 등 4곳에 '중간처우의 집'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간처우의 집은 교도소 담 밖에서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가 생활하는 곳으로, 수용자는 주중에는 외부 업체로 출퇴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주말



광신대학교

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집에 다녀올 수 있다.

법무부는 각 중간처우의 집에 전국 교정시설에서 선발된 모범 수용자를 8~10명씩 수용, 4~8개월간 수용생활 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8분, 해질 17시 22분, 달돋이 13시 24분, 달질 00시 50분. 한낮 포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맑음 4/18°C, 맑은 뒤 흐림 5/16°C, 안개 8/15°C, 맑음 4/17°C, 맑음 0/18°C, 맑은 뒤 흐림 0/18°C, 맑음 1/17°C, 맑음 4/18°C, 맑은 뒤 흐림 2/17°C, 맑은 뒤 흐림 2/18°C, 맑음 3/17°C, 맑음 -4/16°C, 맑은 뒤 흐림 9/15°C.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철도노조 무기한 전면파업

오늘 새벽 4시부터

전국철도노조가 26일 새벽 4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 9월 8일과 지난 5-6일에 이어 올 들어서 세 번째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주장했다. 코레일은 "단행하지 못하는 고등분담 차원의 임금동결 등에 반대하며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려 하고, 해고자의 조건 없는 복직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노조에 맞선 여결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본부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임금 삭감 등 8개에 달하는 임금 계약 안과 연고지 전출 허용 등 120여 개의 과도한 단협 개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사가 교섭을 진행중인데, 전일 단협 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최종 결정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 범위가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연합뉴스

간호학과 편입 정원

내년 30%까지 확대

내년부터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선발 인원이 정원의 최대 30%까지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편입학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 범위가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연합뉴스

(주)골프세상에서 당신만을 위한 클럽을 만나보십시오. 골프세상 상무점 11월 5일 OPEN. 062-385-0689.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1-3번지 1F

축열순간식 전기보일러·냉방기. C&C 대우산업서비스. 080-909-0688, 010-9488-9373